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열려 |

10.11. 본위원회 열어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등 새 회의체 구성도 의결

이세종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11.(금) 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는 등 총 13개 의결안건을 처리했다. 개의회는 지난 9.20.(금)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 등을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최종 마무리가 미뤄져 왔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19.2.19.),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19.2.18.),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19.3.5.) 등 3개 합의안(아래 표 참조)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1〉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

〈2〉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3〉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안)'

- 국가산업지역기업 등 다차원적 노사정 협업모델 개발, 인적자원개발 강화 등 6개 중장기적 과제 추진 등

위원회는 특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회의체 구성과 운영에도 뜻을 같이했다. 격차해소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상생의 법·제도 및 정책대안을 모색,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

〈2〉 '버스운수산업위원회'

- 버스운수 종사자의 인력확보와 능력개발 등을 통해 버스운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경사노위 6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던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상 10.11~1년간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10.11.~5개월 운영)



또한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하여 각각 '20.2.18.과 '20.2.22.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인사말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가 되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본위원회가 7개월 동안 열리지 못해 답답했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주문했다. “합의안을 반영한 탄

력근로제가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며, “합의안대로 입법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 경총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가 전체적으로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 부문은 130위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협력을 원만히 이루고, 고용 유연성 등 과제를 개선하는 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로 지금이 노동현안의 매듭을 풀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등이 매우 긴요한 적기”라며,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된 만큼 경사노위 2기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 2기 출범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난 3월 이후처럼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렵게 사회적 대화가 재가동된만큼 참여주체가 힘을 모아 대화 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논의 구조로 전환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문유진 청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도 인사말을 남겼다. 문 대표는 “사회적 대화의 청년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갈등보다는 연대, 경쟁보다는 상생의 입장에서 충실히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새로운 회의체 구성안을 바탕으로 10월 말 버스운수산업위원회와 11월초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기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